

KAIST EXECUTIVE EDUCATION

Financial Times 경영자과정 부문

아시아 1위 · 세계 20위

1994년 개설 이래 배출한 10,000여 동문의 폭 넓은 교류와 탄탄한 네트워크,
KAIST의 이공계 기반과 경영대학의 전문성이 조화된 수준 높은 명품 강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KAIST AIM⁺ 최고경영자과정

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Since 1994

차별화된 최신 경영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신기술
트렌드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최고경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교육과정입니다.

신기술 트렌드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Emerging Technology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신을 위한
Innovation Management

- 경영사례 개발분석 및 경영진단을 통한 비즈니스 클리닉
- 현장 적용 극대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양방향 토론식 수업

융합시대의 가치창출을 위한
Smart Management

문화와 산업의 접목을 위한

Global Field Trip 이탈리아 로마 / 피렌체

제45기 모집요강

지원자격	기업의 임원 및 최고경영자, 기타 이의 자격과 동등한 인사
교육기간	2016년 9월 1일~2017년 1월 19일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7:00~21:00(저녁식사시간 포함)
교육장소	KAIST 서울캠퍼스(홍릉)
모집기간	~2016년 8월 12일(금)
모집문의	02-958-3989, aim@business.kaist.ac.kr

KAIST AIC 혁신·변화관리과정

Advanced Program for
Innovation & Change
Management
Since 2001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중간관리자들에게 최신 경영이론과 기업의 변화 관리
기법을 교육하여 차세대 CEO를 성공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해외 혁신 기업 탐방을 통한
소속 기업 혁신 방법 모색

- 제품과 경영 프로세스의 혁신
•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 혁신과 변화의 추구를
통한 가치 창조 경영

-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 변화
- 창조적 리더십을
통한 조직변화

제31기 모집요강

지원자격	기업의 팀장, 부서장, 본부장 등 팀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 관리자
교육기간	2016년 8월 31일~12월 21일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15:00~21:00(저녁식사시간 포함)
교육장소	KAIST 서울캠퍼스(홍릉)
모집기간	~2016년 8월 10일(수)
모집문의	02-958-3992, aic@business.kaist.ac.kr

Frontier

KAIST 경영대학

Vol.24 No.2
2016 SUMMER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SPECIAL ZONE

KAIST 김동석 경영대학장
중앙일보 송필호 부회장 인터뷰

INSIGHT ZONE

인공지능, 문제는 사람이다

팻 메스니와 레고의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
도전과 창조, 그리고 협력의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사례와 이에 대한 KAIST 경영대학의 준비

IBM 왓슨(Watson),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을 초대하다



Frontier Contents

2016 SUMMER



SPECIAL ZONE

04 KAIST 김동석 경영대학장
중앙일보 송필호 부회장 인터뷰



INSIGHT ZONE

- 06** 인공지능, 문제는 사람이다
- 08** 팻 메스니와 레고의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
도전과 창조, 그리고 협력의 기술
- 10**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사례와,
이에 대한 KAIST 경영대학의 준비
- 12** IBM 왓슨(Watson),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을 초대하다



GLOBAL ZONE

- 14** 새로운 도약, 그 과정을 이야기하다
- 16** 나의 에콰도르 여행기
- 18** 에콰도르 지진 피해 모금 공연을 개최하다
- 20** 미래 경영 HOT 키워드
- 21** KAIST 경영대학,
EQUIS 5년 재인증을 획득하다



POWER ZONE

- 22** 스마트 시대의 IT정책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송희경 동문(EMBA 57I)
- 24** 데이터 중심 시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김형래 동문을 만나다
오라클 코리아 대표 김형래 동문(AIM 247I)
- 26** 사회적 기업가의 혁신과 헌신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함께 꿈꾸는 세상' 세미나,
SK그룹 최태원 회장
- 28** Manners Maketh KAISTMAN
KAIST 경영대학 KAISTMAN 행사
- 30** ID; HACKATHON을 가다
'ID; HACKATHON'(Idea Digging Hackathon) 행사
- 32** 응답하라 싸이월드
싸이월드 창업자 강영식 동문(KAIST 경영공학 박사)



INSIDE ZONE

- 34** 학회장에 취임한 전덕빈 교수와
강장구 교수를 만나다
KAIST 경영대학 전덕빈, 강장구 교수
- 36** 위험수위 인터넷 범죄와 테러,
국제협력 통한 적극적 병폐 해결 모색
- 38** Book Review
- 40** KCB News

ALUMNI ZONE

- 42** 동문 소식
- 43** 발전 기금

Frontier 22기 학생기자단

김경현	녹색경영	석사	khkim1@business.kaist.ac.kr
김유리	IMMBA	석사	yuri.kim@business.kaist.ac.kr
김은철	TMBA	석사	auagfe@business.kaist.ac.kr
김지나	녹색경영	석사	jnkim0305@business.kaist.ac.kr
김형진	경영공학	박사	hjkim13@business.kaist.ac.kr
유희찬	경영공학	석사	yoohc1990@business.kaist.ac.kr
조형진	TMBA	석사	hjcho15@business.kaist.ac.kr

KAIST 김동석 경영대학장 중앙일보 송필호 부회장 인터뷰

지난 4월 8일 KAIST 경영대학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 전 김동석 경영대학장은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머신 러닝, 그 변화를 이끌 새로운 인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앙일보 송필호 부회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에서부터 경영대학의 미래까지 뜨거운 논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김동석
KAIST 경영대학장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



Q. 올 상반기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인공지능 '알파고'일 것 같습니다. 학장님과 부회장님께서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석 학장 알파고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점을 찾아 시뮬레이션한 뒤 착점을 찾아가는 방식이기에 그 프로세스 자체는 바둑 기사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를 모방하는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2,000여 대의 컴퓨터를 동원해야 했지만, 그 방대한 계산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연산 속도가 빨라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앞으로 더욱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오히려 인간 두뇌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그 복잡한 연산들이 약 1.5kg(1.35L) 정도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작은 '두뇌' 공간에서 일어난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주체가 사람듯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인공지능도 정의되고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송필호 부회장 JTBC가 이번 대국의 중계를 준비하면서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를 비롯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가 아닌 왜 이세돌을 대국 상대로 정했는지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세돌을 지목한 주체가 바로 알파고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수를 두는 이세돌과의 대국을 통해 알파고 자신에게 없던 데이터를 쌓고자 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다. 인공지능이 이렇게나 발전했나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Q.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향후 경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이에 필요한 경영자의 역량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동석 학장 새로운 경영 환경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고 급속히 발전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안목을 가진 경영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능적 측면에서 많은 대체가 일어날 것이며 사고의 영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의사결정은 결국 경영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자는 점, 선, 면에서 이제는 입체로 확장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하의 융합 환경을 이해하고 기존의 선형적이고 순차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송필호 부회장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기던 저널리즘 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이 직접 작성한 기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CEO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영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리', '원칙', '통찰력' 세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3년 뒤를 내다보고 이를 먼저 실행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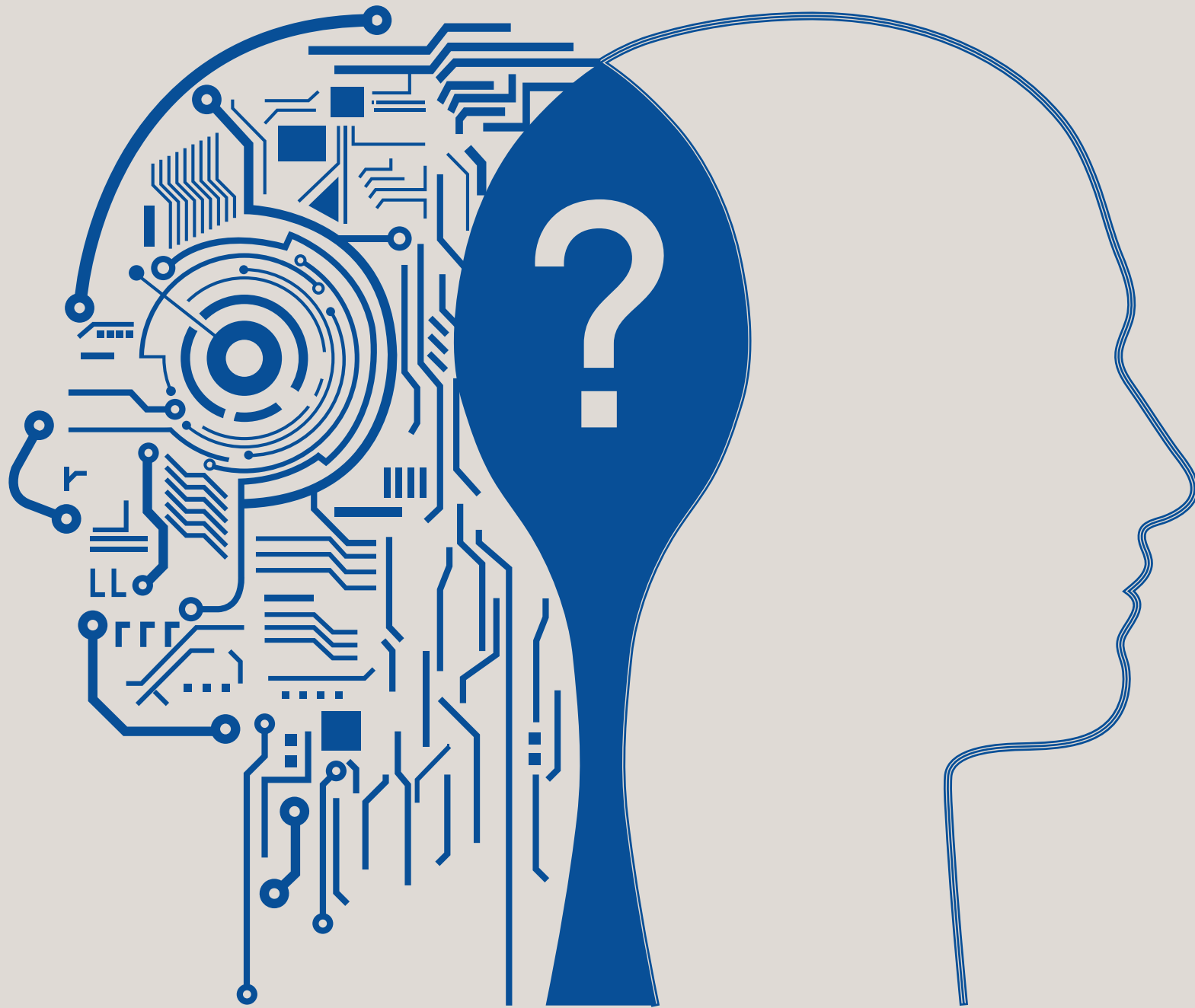


Q. 기술 발전으로 향후 사라질 직업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경영대학은 어떠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김동석 학장 전문 교육 및 경영자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경영대학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체적 융합 환경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KAIST 경영대학은 Education 3.0 그리고 양방향 Interactive 시스템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로 과거 오프라인만으로 불가능했던 교육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송필호 부회장 처음으로 MBA를 접한 것이 1981년도 삼성 비서실 재직 시절 故 이병철 회장의 권유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으로부터 삼성중공업-삼성물산의 전략 컨설팅을 받았을 때입니다. 경험 곡선(Experience Curve)이라는 Tool을 통해 경영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 경영은 감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시절이라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 기업의 이윤만으로 CEO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업이 정신을 발휘하느냐를 진정한 CEO의 자질로 평가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경영대학의 미래도 결국 기업이 정신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앞으로 경영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람이다



인간이 탄생시킨 인공지능

지난 3월,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AlphaGo)가 이 나라에 한바탕 광풍을 일으켰다. 알파고는 세계 바둑 최고수인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4승 1패로 가볍게 승리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둑이 기계에 의해 점령당했다며 충격에 빠졌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처럼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었다. 충격과 공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대부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다. 하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만큼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거나 망하지 않는다. 바둑은 체스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게임이지만,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게임이고, 그날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온 것뿐이다. 체스는 바둑보다 훨씬 단순하여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컴퓨터는 체스 게임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 최적의 수를 계산한다. 바둑이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알고리즘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한다면, 컴퓨터가 인간과의 대결에서 충분히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그 우위를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알파고는 몇 가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바둑뿐 아니라 금융이나 의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고가 기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보다 매우 발전된 것은 사실이다. 엄청난 연산 능력과 분석 능력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이고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알파고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뿐이다.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둔다 해도 알파고는 바둑이 무엇인지 모른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분석과 연산을 통해 이길 확률이 높은 착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둑인지 뭔지 알 수 없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인생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과학 도구로도 신(神)을 찾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어떤 과학 기술로도 생명을 만들 수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로봇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람과 같은 의식이나 자유의지, 그리고 영혼을 가질 수 없다. 만약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스스로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욕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기술이 될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낙관주의와 새로운 기술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비관주의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 기술결정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은 본질이 아니다. 기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욕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팻 메스니와 레고의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 : 도전과 창조, 그리고 협력의 기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응용 분야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극단적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¹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작동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그런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기술은 석기 시대 이후로 인류가 온 역사를 통해 활용해 온 '도구'의 연장선에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첫 번째 대국이 열리기 전 개막 연설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회장이 선언 한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승자는 인간”인 셈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의 진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손에 달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세계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팻 메스니(Pat Metheny)와 레고(LEGO)가 걷고 있는 그 길에 실마리가 있다.



팻 메스니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이유

그 어떤 수식어가 팻 메스니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라는 표현도 부족할 따름이다. 뮤지션으로서 최대 영예 중 하나인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를 20번 수상한 이 불세출의 기타리스트는 타고난 연주 실력 자체도 완벽에 가깝지만, 그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바로 그만의 독창성이다. 재즈를 중심으로 팝과 월드뮤직 등을 넘나드는 그의 음악은 매번 등장할 때마다 새로움으로 가득하다. 클래식 음악보다 더 대중성이 떨어지는 재즈 장르에서 팻 메스니만큼 관심과 기대를 받는 이는 없을 것이다.

1954년 미국 캔자스에서 태어난 그는 13세에 기타 연주를 시작해 이내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며 1972년 마이애미 대학에 합격, 그리고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강사 자리(Teaching Position)를 제 안받기에 이른다. 1973년 버클리 음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브라폰 연주자 게리 버튼을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뮤지션으로서의 그의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The main reason to be a musician is to be creative.”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스스로 밝힌 대로 팻 메스니와 다른 뮤지션들을 구분 짓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다. 소수의 작업에만 집중해야 독창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게, 팻 메스니의 작품들은 이전에 없는 놀라운, 그리고 끊임없고 다양한 시도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² 지금까지 50개에 이르는 음반을 발매하고 일 년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공연에 쏟아붓는 그의 왕성한 활동이 이를 증명한다. 또 다양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협력을 수반한다. 다른 뮤지션들과의 음악적 교류에서도 그가 단연 돋보이는 이유다.³ 그러나 그의 창작활동에 있어 가장 큰 협력자는 다름 아닌 새로운 기술이다. 신시사이저 소리를 내는 기타나 3개의 목과 42개의 줄로 만들어진 ‘피카소 기타(Pikasso Guitar)’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인지 실감하게 된다. 그의 도전이 정점을 찍은 것은 2010년 론칭한 <오케스트리온 프로젝트(The Orchestrion Project)>다.⁴ 그는 로봇이 기타, 베이스, 드럼, 오르간, 비브라폰, 퍼커션을 연주하

는 한가운데서 그들과 호흡을 맞추며 기타를 연주하는 명장면을 연출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레고, 도전과 협력으로 새로운 창조 스토리를 쓰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레고(LEGO)가 빠질 수 없다. 덴마크 빌룬드(Billund) 출신의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Ole Kirk Christiansen)은 1932년 가정용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다. 여러 제품군 중 하나였던 나무 장난감에 대한 반응이 좋아 2년 뒤 그는 회사 이름을 레고로 바꾸고 본격적인 장난감 생산에 들어간다. 그러나 1942년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레고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나무 장난감의 비중을 줄이고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 생산을 시작한다. 현재와 같은 모양의 플라스틱 브릭은 1958년 처음 소개되었는데 서로 연결 가능한 브릭을 독창적으로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서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1988년 레고 블록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되고 레고와 호환되는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실상가상으로 비디오 게임과 MP3 플레이어 등 여러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레고는 그 위상을 점차 잃기 시작했다. 레고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컴퓨터 게임, 아동복, 레고 월드(놀이공원) 등 마구잡이로 신사업을 확장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2004년 레고는 약 2,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레고가 뽑은 카드는 선택과 집중이었다. 다각화 전략을 과감히 접고 경쟁력 있는 전통적인 브릭 사업에 집중한 것이 재도약의 발판이 됐다. 대신 전문성 있는 주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레고를 사랑해 온 레고 팬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록하게 하고

인기 있는 작품은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등 개발 절차를 외부로 개방했다. <레고 아키텍처>, <레고 마인드스톰> 등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또 <스타워즈>로 한정되었던 헐리우드와의 협력을 폭스TV(심슨 가족), 워너브라더스(해리 포터)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과 레고 영화를 공동 제작했다. 또한, 레고와의 브랜드 협력(Co-Branding)으로 제작된 광고 프로젝트들은 독창적 유머 코드 덕분에 두터운 마니아층이 존재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도전과 협력을 통해 레고는 완벽한 재기에 성공했고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최근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준 레고의 협력과 도전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가정에서 레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이다.⁵ 70여 년 전 화재에 이어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던 3D 프린터의 등장에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한 것. 레고는 3D 프린터를 위협 요인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협력의 도구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두가 참여하는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로운 차원의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위한 협력의 도구로 활용해야

레고가 다른 주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때, 원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들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즉,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이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스토리를 써 내려 가고 있는 레고의 핵심 DNA다. 이와 마찬가지로 팻 메스니는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도전과 창조는 그가 지닌 고유의 역량이자 뮤지션으로서의 자존감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의 기술이 팻 메스니와 레고가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그들의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영역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을 향한 갈망과 도전이다. 창조에 대한 열망이다. 우리는 항상 탐구하고 모험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공지능 기술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기술들을 두려움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위한 협력의 도구로 바라볼 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인류의 도전과 창조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까닭이다.

“The main reason to be a human being is to be creative.”



*참고 문헌

Simonton, D. K.(1977). Creative Productivity, Age, and Stress: A Biographical Time-Series Analysis of 10 Classical Compos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11), 791-804.

1 <유엔 미래 보고서 2045>는 30년 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직업군으로 의사, 변호사, 기자, 통·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감사, 재무 설계사, 금융 컨설턴트 등을 꼽았다.

2 Simonton(1977)의 연구에 따르면, 베토벤, 모차르트 등 유명 작곡가들의 작품 중 명작들로 손꼽히는 것들은 그들의 작품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의 결과물들로 나타났으며 이는 ‘질(Quality)은 양(Quantity)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자신의 연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짐 홀(Jim Hall)과 함께한 <Jim Hall & Pat Metheny>(1999), 데이빗 보위(David Bowie)와 함께한 영화 <The Falcon & The Snow Man>(1985)의 사운드 트랙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4 오케스트리온은 기계의 움직임으로만 연주되는 악기를 일컫는데 전류로 발생하는 자기장을 물리적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솔레노이드’ 장치를 활용했다.

5 레고의 디자이너 스테파니 뮐러(Stefanie Mueller)가 제작한 ‘파브리카토(Brickato)’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레고 제작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 레고-Homegrown LEGO다. 3D 프린터로 레고를 제작할 경우 14시간의 생산과정을 불과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사례와 이에 대한 KAIST 경영대학의 준비

‘인간은 필요 없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구는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미래 보고서가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발표되었으며, 경영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해외 및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적용사례와 KAIST 경영대학에서는 현재 경영 이슈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화제가 된 구글은 지난 5월 18일 전 세계 프로그램 개발자 콘퍼런스인 구글 I/O(Input Output)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저 맞춤형 서비스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과 머신 러닝을 활용한 대화형 도우미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를 발표한 것이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사용자 질문의 맥락까지 이해하는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머신 러닝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에 맞는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구글은 이러한 구글 어시스턴트를 IoT 기반 구글홈, 모바일 메신저 앱 ‘알로(Allo)’에 적용시켜 출시할 예정으로, 구글이 인공지능을 통해 실생활에 더 밀착된 제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챗봇(Chatbot)’ 서비스, 아마존의 ‘에코(Echo)’,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도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게임회사에서도 NPC(Non-Player Character)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게임 속 캐릭터가 인간과 동일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사고하며 각 유저(User)에 맞춰 다양하게 대응하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유저 별로 다른 반응, 스킵을 적용하여 유저들은 게임에서 더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내 무한의 탑 1:1 대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였다. 기존 게임 캐릭터는 특정 구간마다 정해진 패턴으로만 대

결을 펼쳤지만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도록 게임을 업그레이드했다.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기술,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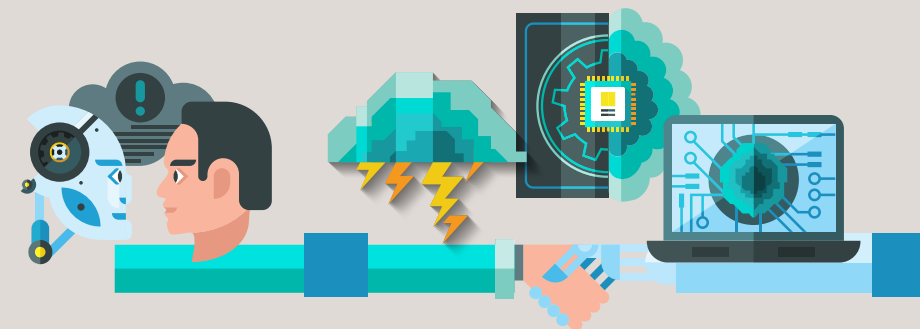
IBM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왓슨’을 의료, 교육, 서비스, 금융,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여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지아 공대에서는 왓슨을 컴퓨터 공학 조교로 활용하기도 하고 미국 대형 로펌 베이커 & 호스테틀러에서는 법무 서비스도 제공을 위해 왓슨을 변호사처럼 활용한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자산관리 업무에 왓슨을 도입하여 자산관리사에게 고객 맞춤 상담법을 추천해 주며, 미국 앤더슨 암센터는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왓슨은 로봇에도 적용되었는데 소프트웨어뱅크의 휴대폰 매장에서 로봇 ‘페퍼’가 핸드폰을 판매하고, 힐튼에서는 ‘코니’로 고객들을 맞이하며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석해보았을 때, 인공지능은 인간과 상호 소통하는 수단이며 최적의 의사결정을 제공하여 인간의 인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본 동작 원리는 인공지능경망(Neural Network)을 토대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인간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머신 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 최적화된 결과를 알려준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많은 분야에서 개별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적인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영역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KAIST 경영대학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현재 KAIST 경영대학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학적 통찰력을 도출, 이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리더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보미디어MBA에서 B.A.(Business Analytics) 집중 분야(Track)를 운영하고 있다. Business Analytics, 데이터마케팅과 지능형 마케팅, 고급 Business Analytics 등의 과목을 통해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경망, 딥러닝 등 데이터 분석기법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이외에도 IBM Watson Case Study 및 Carolinas HealthCare System 등 머신 러닝을 활용한 실제 경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금융공학 금융 애널리틱스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인공지능을 금융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도 바꿀 것이라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KAIST 경영대학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분야 등 기술과 경영을 융합한 다양한 교육으로 이러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잘 적응하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KAIST 경영대학이
기술과 경영을 융합한
다양한 교육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IBM 왓슨(Watson),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을 초대하다

인공지능이 화두(話頭)인 요즘 '왓슨(Watson)'을 개발한 IBM이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을 초대해 본사의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공지능(AI)과의 사랑을 다룬 영화 <Her>는 2년 전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독특한 소재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 영화쯤으로 여겨졌다. 올해 초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대결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상을 놀라게 한 알파고의 승리 이후 학계, 재계,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인공지능으로 향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화두(話頭)인 요즘, '왓슨(Watson)'을 개발한 IBM이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을 초대해 본사의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이 '알파고(AlphaGo)'보다 먼저 개발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IBM은 2004년에 왓슨을 개발했고, 2011년에 <Jeopardy>라는 미국 유명 퀴즈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한 IBM이 지난 5월 11일, KAIST 경영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왓슨, 코그니티브(Cognitive) 비즈니스의 시작'이라는 설명회를 한국 IBM에서 개최했다. IBM HR 담당 강혜진 상무, IBM Korea Lab & Client Center 정창우 상무, KAIST 경영대학 마케팅 전공 이찬진 교수를 포함, 다양한 과정의 재학생 4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행사는 HR 담당 강혜진 상무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강혜진 상무는 한국 IBM의 채용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기계와 협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 어떠한 인재를 뽑아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한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경력 채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뒤이어 강단에 오른 HR 채용팀 최현수 차장은 IBM의 New Vision과 인재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KAIST 경영대학의 학생들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IBM 코리아에 많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IBM이 진행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비즈니스'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어졌다. 강연을 맡은 정창우 상무는 IBM의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IBM이 전통적인 B2B 비즈니스에서 'Cloud 플랫폼 위에서 코그니티브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기업', 즉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모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BM의 CEO 지니 로메티(Ginni Rometty)는 올해 초에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맡아 IBM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창우 상무는 왓슨을 활용한 산업별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헬스케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및 Business Analytics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고,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은 왓슨을 실제로 자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내 전략 컨설팅 동아리(BSC)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간식(TMBA '15) 학우와 한국 IBM에 재직 중인 최안나(TMBA '11) 동문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당초에는 '선배와의 만남' 정도로 추진하던 동아리 행사, 입소문을 타 많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약 40여 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되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IBM의 니즈가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사였다. 이번 설명회와 같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



새로운 도약, 그 과정을 이야기하다

여느 때와 같은 여름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래왔듯이 KAIST 경영대학에서는 경영공학부 박사과정 졸업생의 해외 명문대 교수 임용 소식이 역시나 들려왔다. 네덜란드 Erasmus 대학 유재운 학우(경영공학 '11), 영국 Cass Business School 대학 정재현 학우(경영공학 '11), 중국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대학 이준영 학우(경영공학 '12)가 그 주인공이다.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20년의 박사과정 졸업생 중 44%가 국내 외 교수로 임용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미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등 전 세계를 아울러 경영정보시스템, 재무, 회계, 조직/전략, 운영관리 등 경영학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KAIST 경영대학 졸업생이 교수로 부임했고 세계적 학자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올여름 해외 대학 교수로 부임하는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동문과 학우들을 위하여 정재현, 이준영 학우를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현재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아 선별했다.

이준영(경영공학 '12)



Q. 학창시절부터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떻게 KAIST 경영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과학고등학교, KAIST 학사-석사-박사. 처음부터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는 추측과 달리 정 씨와 이 씨의 대답은 놀랍도록 순박했다. “서울에 있어서요” 인터뷰가 개별로 진행되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삶에 대해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다. “공학을 공부하다가 실제적인 사회현상, 사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겨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처음엔 어렵듯이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관심 분야가 명확해지고, 비전이 뚜렷해지더라고요”라고 말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막연함 속에서 고민하고 견뎌 내는 동안 숙성되어 제 향을 찾게 된 것일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들이 지금은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

Q. 우리 학교에 있었던 것이 좋았나요?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두 사람 모두 정말 솔직하게 좋았다고 답했다. 이 씨는 “외로움을 타는 성격인데, 유학을 가지 않고 KAIST 경영대학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수한 교육을 받은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고, 정 씨는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명실상부한 사실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기숙사, 랩 문화를 통해 선 후배 동기들과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미국과 유럽 지역의 학계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언어(영어) 등의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 부분은 대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두 사람은 이야기했다.

KAIST 경영공학부
박사과정 졸업생
해외 대학 교수 임용 사례
(1996~2016)



No	성명	임용년도	연구분야	임용된 해외대학
1	이재남	2000	IT outsourcing, Knowledge Management	City Univ. of Hong Kong, China
2	김희웅	2002	정보시스템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3	박기우	2002	경영정보시스템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4	최병구	2004	경영정보시스템	Th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5	안형준	2005	경영정보시스템	Univ. of Waikato, New Zealand
6	이하빈	2007	Data Analytics and Operations Management	Brunel Univ. London, United Kingdom
7	강병욱	2009	재무	Hong Kong Polytechnic Univ., China
8	임영덕	2009	회계	The Univ.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9	최보배	2009	회계	Univ. of Newcastle, Australia
10	이두원	2009	재무	Univ. of Newcastle, Australia
11	이상윤	2011	전략/조직	Univ. of Southern Denmark, Denmark
12	민병규	2011	재무	University of Neuchatel
13	박상현	2012	회계	Augusta Univ., USA
14	한철우	2013	재무	Durham Univ., United Kingdom
15	김형태	2013	회계	Arkansas State Univ., USA
16	한상필	2014	Business Analytics & IT 경영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17	정성훈	2014	MIS	Univ. of Queensland Business School, Australia
18	방영석	2015	MIS	Chinese Univ. of Hong Kong, China
19	김학건	2015	재무	Southwest Jiaotong Univ., China
20	허동철	2015	IT경영	Bangkok Univ., Thailand
21	유재운	2016(부임예정)	회계	Erasmus Univ., Netherlands
22	정재현	2016(부임예정)	회계	Cass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of London, United Kingdom
23	이준영	2016(부임예정)	IT경영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Q. 경영대학의 위기라던데, 우리 학교는 괜찮을까요? 또 제가 경영학을 계속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성공한 큰 형님/큰 오빠’의 격려를 듣고 싶었던 것일까? 재학생들의 질문엔 우리 학교와 자신에 대한 걱정이 담긴 질문이 많았다. 정 씨는 이 질문들에 대해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경영대학이 위기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실사 위기에 있다고 우리 학교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라고. 더불어 학위과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재학생들에게 “학위를 받은 선배와 동기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씨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라며 재학생의 질문에 공감했으며, “스스로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길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주변의 선배와 동문들, 교수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아직 제가 졸업생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제 곧 졸업할 동문으로서 우리 학교에 바라는 점은, 지금처럼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소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문이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청년. 이제 학생이 아닌 졸업생으로서 KAIST 경영대학과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지금처럼만 잘하자고 대답했다. 아직은 조금 낯선 옷을 입은 듯 어색한 모습을 감출 수 없지만, 준비된 학자의 모습이 완전한 이들이 자랑스럽다.

정재현(경영공학 '11)



나의 에콰도르 여행기



나에게 에콰도르는 생소한 나라였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수도가 어딘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유명한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학기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금융 MBA 과정(KOICA 프로그램)의 Luisana와 Jessica 동문은 남미 여행을 준비 중인 나에게 그들의 모국인 에콰도르를 추천해주었다. 사실 추천받았을 때조차 “대체 뭐가 유명한 나라지?”라는 생각 외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 했다. 그러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차차 알아갈수록 에콰도르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였다. “All you need is Ecuador”라는 그들의 슬로건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갈라파고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천혜의 땅으로 초대하다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는 수도 ‘키토’ 혹은 항구도시 ‘과야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본토와는 한 시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갈라파고스는 현재의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입도비만 해도 100달러에 이르고 입도 절차도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까다롭다. 동식물

의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섬을 나갈 때는 모래 한 줌, 돌멩이 하나조차 반출할 수 없다. 길거리와 모래사장에 동물들이 즐비하지만 절대 만져선 안 되며 사진을 찍을 때도 플래시를 터뜨려선 안 된다. 관광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크루즈에서 먹고 자며 섬에 들러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고, 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투어를 즐길 수도 있다. 크루즈 투어는 잠자는 동안 이동할 수 있고 모든 숙박과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매우 비싸다. 섬에서의 숙식은 저렴하지만 낮에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숙식도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갈라파고스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후자를 택했다. 그중 이사벨라 섬에서 투어를 즐겼다(갈라파고스에는 크게 산타크루즈, 이사벨라, 산크리스토팔 섬 등이 있다). 이사벨라에서는 화산 투어, 튜넬레스 투어, 띠토텔라 투어 등을 즐길 수 있는데, 이전 여행지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자의 추천으로 화산 투어와 튜넬레스 투어를 즐기기로 하였다.

이사벨라 섬에 들어가면 몇 마리의 바다사자들이 해변에서 낮잠을 자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보트 위에서 몰래 낮잠 자는 바다사자, 나무 그늘에서 서로 껴안고 자거나 벤치 등받이에 얼굴을 올리고 낮잠 자는 바다사자들을 볼 수 있다. 가끔은 이구아나 떼가 길을 막아서기도 한다. 예약해 둔 숙소의 픽업 차를 타고 마을의 경치를 관람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자상 낙원 ‘이사벨라 섬’에서 이색 체험을

본격적인 투어는 도착 이튿날 시작되었다. 이사벨라 섬은 화산지형으로, 최근까지도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한다. 화산 투어에서는 활화산에 올라 다양한 지형을 구경할 수 있는데, 맑은 날에 오를 때엔 선크림과 챙이 넓은 모자가 필수다. 열굴에만 선크림을 바르고 오를 결과 팔다리는 물론이고 목과 귀에도 화상을 입어야 말았다. 또한,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을 충전하고 투어에 나서야 한다. 날씨도 무덥고 지형도 평탄하지 않은 만큼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큼 매력 있는 투어이다. 열기가 피어오르는 분화구, 화산활동으로 빚어진 다양한 형태의 기암괴석,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는 선인장들은 지구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주기 충분하다.



바다사자



화산지대의 선인장



화산지형



블루풋부비새



이구아나

튜넬레스 투어는 튜넬레스가 터널을 의미하는 만큼 수중동굴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마, 바다거북, 가오리, 상어를 관찰하고 함께 헤엄칠 수도 있다. 다행히 이곳에 서식하는 상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구멍조끼 없이 다양한 수중동물과 헤엄쳐보기 바란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던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 외에도 블루풋부비새와 펭귄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블루풋부비새는 말 그대로 파란 발을 가진 새로, 갈라파고스를 대표하는 동물 중의 하나이다. 운이 좋은 날에는 암컷에게 구매하는 수

컷 블루풋부비새의 춤을 볼 수도 있다. 이곳의 펭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보다 몸집이 작은데, 찬 바닷물을 따라 이동해온 펭귄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집이 작아진 결과라고 한다.

앞서 소개한 이사벨라 섬의 화산투어와 튜넬레스 투어는 갈라파고스의 일부일 뿐이다. 갈라파고스에서 필자와 같이 3~4일 여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볼 것, 경험할 것이 넘쳐나는 매력적인 섬이다. 열흘을 머물러도 질리지 않을 섬이라고 확신한다. 생애에 한 번쯤은 꼭 여행해보길 권하며, 다양한 수중동물들과 함께 수중촬영도 경험해보길 바란다.



위대한 행동이란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테레사 수녀-

에콰도르 지진 피해 모금 공연을 개최하다

지난 4월 16일 18시 58분(에콰도르 시각)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주 무이스네 부근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번 지진은 1979년 투마코 지진 이후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주변 국민 콜롬비아를 포함하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가 3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660명 사망, 4,600여 명 부상으로 피해 복구에만 3조 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 에콰도르를 위해 KAIST 경영대학은 에콰도르 지진 피해 모금공연(A Night of Ecuador)을 개최하였다.

Nobody Stands Alone, 에콰도르 지진 피해 모금행사

지난 5월 9일 저녁 8시에 KAIST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2층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을 위한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BREATH 공연 제작사(대표 서정연, SEMBA 2기)가 준비하고 Sarah Sowe Jazz Trio(Featuring. GROOVE CHAN), 가수 조재일, 색소폰 박광식, Special Dance Team 등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는 KAIST 경영대학 김동석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김동석 학장은 학생들이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콰도르 지진 피해를 위한 모금활동을 기획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고, 에콰도르의 피해 상황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원하였다. 이후 KAIST FMBA에 재학 중인 다니엘라(Proaño Daniela)는 Nobody Stands Alone 이란 주제로 에콰도르와 지진 관련 피해 상황을 발표하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담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청중들에게 모금을 부탁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 에콰도르 대사인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Óscar Herrera Gilbert)와 그의 부인이 직접 참석했는데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과 일일이 마주하고 인사를 하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였다.

피해자들을 기리는 묵념이 있고 난 뒤에는 Sarah Sowe Jazz Trio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Sarah Sowe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Grove Chan이 춤을 추는 독특한 형태의 공연을 통해 음악의 선율과 이를 표현하는 몸짓을 통해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여러 곡 중에 한국의 전통민요인 '아리랑'도 연주했는데, 조국을 빼앗긴 슬픔을 노래하는 아리랑의 화자와 에콰도르가 겪는 어려움의 공통점을 느끼며 '무언가를 잃어버린 감정'을 양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공연은 당일 공연을 관람하고 중간에 모금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모금한 성금들은 모두 에콰도르 대사관에 전달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통해 '동감(Sympathy)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동감은 기본적인 감성이자 타인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는 능력으로, 이를 기반으로 '사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에콰도르 국민과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들의 아픔이 직접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동감'할 수는 있다. 이러한 동감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나타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콰도르 지진 피해 모금 행사는 작은 씨앗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Nobody Stands Alone이라는 말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민족, 국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도우며 극복해가는 'Global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원한다.



미래 경영 HOT 키워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경영 방식에 주목해야 할까? 20주년을 맞아, KAIST 경영대학의 각 분야 교수들이 “미래 경영 Hot 키워드”를 제시하여 주었다. 올해를 뜨겁게 달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떠오른 키워드 ‘빅데이터’부터 경영 철학의 키워드 ‘행복 경영’까지, KCB 경영대학 교수들이 선별한 키워드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미래 경영환경에 잘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자.



자주적 소비

Autonomous Consumption

권영선 기술경영학부장

미래에 인간은 24시간 주변의 센서로 관찰되고 개개인에 맞춰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며 소비하는 인간다운 삶을 원할 것이고,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미래 경영의 한가지 흐름이 될 것입니다.

2인 3각

김영걸 대외부학장

미래를 리드할 기업이라면 매출과 이익에만 집중하여 혼자 질주하기보다는 고객 그리고 협력 업체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페이스로 사이 좋게 2인 3각으로 달릴 것입니다.

빅데이터 경영

문순천 교수

미래의 환경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전략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경영에 대비하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탄소제로성장

박광우 녹색성장대학원장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에따른 해수면상승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탄소배출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무탄소 경영을 해나간다면 현재의 투자비용은 크지만 향후 훨씬 큰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뉴로경영

박병호 교수

지난 수년간 과학자들이 두뇌의 작동기제를 빠른 속도로 밝혀내고 있고 이를 소비자들과 IT 사용자, 투자자, 그리고 리더와 종업원의 심리 연구에 폭넓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서울 캠퍼스의 연구자원들을 고루 갖춘 KAIST는 뉴로경영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이덕희 교수

미래에 생태자본주의, 생태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같은 좁은 범위에 서의 기업가치 창출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커뮤니티나 사회, 환경 등의 전체 가치의 향상을 고려한 기업 행위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 경영

이희석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장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이에 따라 수익도 창출되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행복이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되기에 행복 경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 경제 / 디지털 사회 혁신

Sharing Economy

Digital Social Innovation

조항정 교수

희소성과 경쟁이 근간인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역할이 끝나고 집단 지성과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 경제로 인류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유와 참여로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CONGRATULATIONS

KAIST 경영대학, EQUIS 5년 재인증을 획득하다

KAIST 경영대학이 지난 4월 12일 유럽경영대학협의회(EFMD)의 EQUIS(The EFMD Quality Improvement System)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0년 EQUIS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5년간의 재인증을 받은 KAIST 경영대학은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AACSB) 인증까지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대학으로써 명성을 공고히 했다. 또한 KAIST 경영대학은 AACSB, EQUIS 인증 외에도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 가입 및 2013년 국내 최초로 세계경영교육연합(PIM) 가입 등 4개 국제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국내 유일의 경영대학으로 글로벌 명문 경영대학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명문 경영대학의 상징 'AACSB·EQUIS' 인증

앞서 언급한 두 인증 중 국내에 잘 알려진 AACSB는 KAIST 경영대학이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뒤를 이어 취득한 학교들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세종대, 서강대, 연세대, 총 7개 대학이 있다. 미국의 경우 Harvard University, MIT, The University of Chicago,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등 주요 대학들이 모두 AACSB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London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xford, Warwick Business School, Imperial College London, Manchester Business School,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Cass Business School, 일본에서는 Keio University 외 1개 대학, 중국에서는 Tsinghua Universit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외 몇 명문 대학들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교수진과 학생들의 '불철주야' 노력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EQUIS 취득

이처럼 AACSB 인증과 EQUIS 인증을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문 경영대학의 상징이다. 특히, EQUIS 인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AACSB 인증을 획득하는 것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AACSB를 취득한 대학은 전 세계 500여 개에 달하지만 EQUIS를 취득한 대학은 120여 개에 그쳐며 이중 EQUIS 5년 유효 인증을 보유한 대학은 전 세계 경영대학 중 50여 개에 불과한 것만 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북미 지역의 권위 있는 인증 기관인 AACSB와 함께 세계 양대 MBA 인증 기관으로 불리는 유럽경영대

학협의회(EFMD)는 3년 혹은 5년마다 EQUIS 인증을 재발급하는 제도를 통해 인증 학교들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QUI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진 평가, 국제화 수준,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의 질, 기업과의 연계 및 윤리적인 부분 등 총 10개의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AIST 경영대학은 올해 경영공학 학생들의 우수성과 교수진의 활발한 연구 활동, IT 경영/금융 등 전문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 사회적기업가 MBA 및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 등의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도록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5년 재인증에 성공했다.

AACSB와 EQUIS 두 국제 인증은 공신력이 매우 높아 세계 명문 경영대학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증 제도이다. 해당 인증을 받는 것은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국제 교류 기회를 취하는 것과 같다. 인증을 획득한 경영대학 사이에는 학점을 교류하고 교수·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대학 간 협정을 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곧 선진 대학들의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경영학과 관련된 저널, 연구, 리서치 등의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

김동석 KAIST 경영대학장은 “이번 EQUIS 재인증은 KAIST 경영대학의 교육 체계와 연구 수준이 세계 명문 경영대학과 대등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2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준비하여 2025년까지 세계 Top 20위 내의 명문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 시대의 IT정책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송희경 동문(EMBA 5기)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는 IT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들은 정부부처 관리자 혹은 교수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입법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과감하게 대기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Q. KAIST 가족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KAIST 경영대학 EMBA 5기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송희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공학도로 최근까지 KT에서 근무했고, 이제는 현장과 정부를 잇는 ‘ICT 통로 국회의원’으로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Q. 기업가에서 국회의원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있으신지요?

정치권과 특별한 인연 없이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득에 국가를 위해 일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29년간 ICT 업계에서 비즈니스만 해왔기에 현장 전문성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입성’보다는 ‘나라의 부름’이라고 생각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기쁠(희)에 벼슬(경)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기에 국회의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3당의 비례대표 1번이 모두 과학계 인사입니다. 정치권이 어려운 현실의 돌파구로서 과학 분야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도로서, ICT 현장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정치권의 인식 변화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현장의 이야기보다는 정부기관이나 학계 목소리만 대변되었는데 그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과학, 기술, 기업현장을 융합해 현실 정치로 이끌어 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IT 관련하여 어떤 입법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의 속도를 올려 산업 발전의 육성을 입법 활동의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전통산업이 무너졌고 구글이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성장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축이 옮겨가는데, 이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 고려
- 빅데이터 취합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나 사전 동의 이슈 관련 데이터 규제 해결, 정보 보호 산업 발전법 개정안 등 검토
- I-C-B-M 산업과 관련된 정보 보호 문제 및 R&D 문제 해결
- 클라우드 산업 발전법 개정안 검토, 공공기관의 성격과 정보 보호 등급에 따라 보안인증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 지원
- 워킹맘 관련 법안 검토 예정. 특히 임신-출산-육아-재취업까지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

Q. KAIST 경영대학 EMBA 과정에 지원하셨던 계기는 무엇 인가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지원센터를 거쳐 사업 부문 CEO를 맡으면서 경영에 대한 배움을 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감리사 및 기술사 자격증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충분히 쌓았지만 기업 경영 방법에 대한 지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마침 회사의 지원도 있어서 주저 없이 KAIST 경영대학의 EMBA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Q. 2년 동안의 EMBA 과정을 어떻게 경영현장에 적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영과 재무, 거시·미시 경제, 마케팅 전략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 쌓을 수 있었고, 특히 Field Trip을 통해 얻은 미국 USC, 스페인 마드리드 비즈니스 스쿨의 현장 사례는 생생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끈끈한 동기 우애를 느낄 수 있었고 26명의 남동생이 한번에 생겼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이렇게 얻은 인적 네트워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나일 있고 전문성 있는 임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도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공학과 경영의 융합을 추구하는 KAIST 경영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해주세요.

Fusion Technology에 관한 심도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융합 없이는 어떤 산업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메가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융합에 대한 커리큘럼 많아져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논리, 인공지능 및 로봇에 대한 이해 등이 커리큘럼에 반영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이 되는 재무관리와 거시경제, 그리고 미시경제 관련 커리큘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이창양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수업을 잊지 못하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 틀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초 과목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Fusion Technology와 경영을 융합한 다양한 교과목 커리큘럼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로서 KAIST 경영대학의 여성 동문, 학우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성 리더로 성장하려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주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테이블의 가장자리보다는 중앙에 앉고 공격적으로 업무에 도전하고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치열한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가려면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일하는 여성은 유리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일과 가정, 남성성과 여성성, 적극성과 수동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워킹맘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슈퍼우먼이 되려 하기보다는 주위에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중심 시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김형래 동문을 만나다

오라클 코리아 대표 김형래 동문(AIM 24기)

20년 전부터 기술과 경영의 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KAIST 경영대학은 산업을 이끄는 많은 리더들을 배출했다. 데이터 중심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솔루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유)의 김형래 대표를 만났다.

Q. 대표님과 오라클 코리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3년도에 삼성전자 공채로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였고, 이후 HP와 삼성전자의 합자회사인 삼성HP(주)에서 22년간 소프트웨어 세일즈 및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사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5년부터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BEA시스템즈코리아(주)의 대표이사를 3년간 역임했고, 이 시기에 KAIST 경영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IM)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Solution Provider인 한국오라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을 이수하셨습니다. 본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BEA시스템즈코리아(주) 대표 시절 최고경영자과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 대학의 프로그램을 비교하였고 KAIST 경영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인 AIM의 커리큘럼이 여러 측면에서 균형 있다고 판단해 입학했습니다. KAIST 경영대학 AIM과정은 경영자가 지속적인 변화를 리드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 지식, 지혜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네트워킹 측면에서의 장점도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제대로 잡고 싶었습니다.

Q. KAIST 경영대학의 AIM과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새로운 기술, 경영의 좋은 사례, 트렌드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IM 커리큘럼도 좋았지만, 졸업 후에 제공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김성희, 이희석 교수님 주도로 진행되는 재능 나눔협동조합의 Creative Commons Forum(CCF)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데, 교수님 두 분께서 준비한 세션을 통해 미래 트렌드와 사례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AIM을 비롯한 다른 최고위과정 분들께서도 참석하기 때문에 트렌드, 지식, 인사이트를 배워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수 동문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던 혜택들을 졸업 후에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KAIST 경영대학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수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직접 진행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Q. Business Analytics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여 오셨나요?

최근 경영 트렌드인 Business Analytics, 인공지능, 딥러닝 등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DB) 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로직을 만들고 New Intelligence(Insight)를 도출하는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영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경쟁사들이 특정 영역만 제공할 때, 오라클은 SaaS, PaaS, IaaS의 큰

영역 모두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Total Cloud Solution Provider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을 동시에 쓸 수 있는 Hybrid-Cloud는 구현하는 데 선택의 폭이 넓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가 있습니다.

Q. 동문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 의식 수준 향상, 여성인력의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33년간 종사하면서 경험하고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사 CSR 차원에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은퇴 후에도 관련된 일을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유사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해 접근하고 싶습니다.

Q. KAIST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의 키워드로 대변될 미래에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조업 분야는 Industry 4.0(Manufacturing 4.0)이 화두인데, 여기서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일반 경영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정형 데이터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해 경영활동과 제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보편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AIST 경영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시대 흐름을 주도할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혁신과 헌신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함께 꿈꾸는 세상’ 세미나, SK그룹 최태원 회장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스크린에 웃음 가득한 사회적기업가 MBA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 나타난다. 열정이 담긴 모습 속에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함께 투영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닿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 최태원 회장의 눈빛에 미소가 내려앉았다.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동행자이자 멘토로서 그가 진솔하게 입을 열었다.



지난 4월 8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함께 꿈꾸는 세상” 세미나를 위해 KAIST 경영대학을 찾았다. 이번 세미나는 연사와 학생들의 진솔한 대화를 목적으로 했기에 학생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세미나 전에 최 회장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을 사전 질문으로 보냈고, 최 회장은 학생들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청중들은 특강 중에도 현장에서 실시간 온라인 질문접수 시스템을 통해 계속 질문할 수 있었다.

“진솔한 대화와 기업의 역할을 통해 자본주의를 보다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최태원 회장님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상생이라는 두 개의 저울추의 균형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정보경영 송창환(15)

학생들의 첫 번째 질문은,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유, “WHY?”로 선정되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이유에 대해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서 사회 시스템은 누군가가 가꾸지 않으면 숲이 되지 못하고 더 황폐해지는 민동산과 같기에, 현재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가꾸어 나갈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을 덜어주고 싶으면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생존하기 위해 최 회장과 SK그룹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을 위해 힘쓴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답을 들으며 청중의 분위기는 엄숙해졌다.

“이전까지는 사회적 기업가를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사회 시스템, 사회적 문제, 안전주의 의식,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금융MBA 신상철(16)

사회적 기업가이자 학생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혁신과 헌신’이라고 답했다. 어렵지만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한 희망과 기쁨의 헌신. 그것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단초라고 답했다.

“최태원 회장님께 저희 기업이 직면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세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직접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회장님의 답변을 들으며 회장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회장님이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하여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사업 운영상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적기업가MBA 노태준(16)

사전질문 답변이 끝난 후 현장 멘토링 콘셉트로 진행한 자유질의·응답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열정으로 가득 찼다. KAIST 경영대학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은 각자의 영역과 사회적 기업의 교차점에서 질문했고 최 회장은 이번 특강을 듣기 위해 외부에서 참석한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들의 질문에 도 끝까지 답해주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음에도 결핍을 느끼는 사회, 다음 세대가 그런 사회를 경험하지 않도록 대기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 믿기에 그러기 위해 노력한다는 최태원 회장. 그리고 오늘날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가와 우리를, 함께 꾸는 이 꿈이 사회 속에 스며들어 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Manners Maketh KAISTMAN

지난 4월 20일, 경영대학 학생회와 마케팅·취업지원실의 기획으로 KAISTMAN 행사가 개최되었다. 수업과 조 모임에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부족한 1%를 채워주는 일종의 맞춤형 비즈니스 예절교육이 었다.



“[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_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中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영국 신사 콜린 퍼스는 불량배들에게 손수 ‘매너’를 가르쳤다. 사실 “Manners Maketh Man”은 14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정치가 겸 교육자인 William of Wykeham(1324-1404)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그만큼 서양 문화에서 매너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때론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짓는, 사람이 응당 지녀야 할 소양이 었다. 그렇지만 매너가 서양문화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덕행이 군자를 만든다”라는 로컬라이징 패러디가 있기 전에 우 리의 선조들은 일찍이 ‘동자례’를 만들어 어린 시절부터 예절교육에 힘써 왔다. 용모, 대화, 식사, 주변 정리까지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모든 것을 예절의 범주로 보았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예절은 매우 중요 하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매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일, 경영대학 학생회와 마케팅·취업지원실의 기획으로 KAISTMAN 행사가 개최되었다. 수업과 조 모임에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부족한 1%를 채워주는 일종의 맞춤형 비즈니스 예절교육이었다. KAIST 학생들이 예절이나 센스 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화법, 메이크업, 와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용한 팁 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한, 행사 마지막에 있었던 네트워킹 파티는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육받은 꿀팁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였다.



※
비즈니스에서도
예절은 매우 중요하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매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1부 행사 ‘KAI_STYLE’에서는 취업과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강의들이 마련되었다. 강의 경력 19년을 자랑하는 홍순아 강사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 위한 화법’을 주제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상대방을 마주하는 자세부터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손주연 강사는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위한 메이크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여학우들을 위한 화장법뿐만 아니라 남학우들에게도 유용한 눈썹 정리 방법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깨알 같은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 와인 전문 기자 출신의 김설아 강사는 와인 강의를 펼쳤다. 와인의 종류,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와인 마실 때의 예절, 와인 보관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와인 시음을 통해 “비싼 와인이 맛있다”라는 편견을 깨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부 행사 ‘KAIST PEOPLE’에서는 재학생 간의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었다. 다양한 전공 출신의 참석자들이 모여 함께 와인을 즐기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칫하면 서먹서먹할 수 있던 분위기도 알고율의 힘을 빌린 덕택에 금세 시끌벅적한 파티 분위기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박재곤(경영공학 ‘16) 학우는 “평소에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매우 유익했고 강사님들께서 재미있게 진행해주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여러 분야의 학우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며 행사에 만족했다.

경영대학 학생회장 송영욱(TMBA ‘15) 학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한 KAISTMAN 행사였습니다. 강의를 통해 경영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배우고, 교내 학생 간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를 배우자는 것이 취지였습니 다. 1부 KAI_STYLE에 참석 신청을 하고도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과, 인원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해 대기했 던 학우분들께 아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2부 행사에는 참여 제한을 두지 않아, 70명이 넘는 분 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의 행사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KAISTMAN 행사는 유용한 정보와 즐거운 네트워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이 끌어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KAISTMAN 이외에도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ID; HACKATHON을 가다

KAIST 경영대학 창업동아리 KAIST-ventures와 K-ICT 창업멘토링센터가 주관하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KAIST 창업원의 주최로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ID; HACKATHON'(Idea Digging Hackathon)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청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00여 명의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여했다.

해커톤(HACKATHON)은 Hacker+Marathon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관련 그래픽 디자이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벤트이다. 개별 작업과 팀 작업으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 하드웨어 부품을 다루기도 한다. 해커톤은 보통 1일부터 1주일 기간 동안 개최된다. 단순히 교육이나 사회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커톤은 특별한 테마인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API 등으로 주제를 정해서 진행되거나, 아무 제한 없이 여는 경우도 있다. 이번 HACKATHON은 'The Minor Idea for the Better World'(세상을 바꿀 소소한 App/Web 아이디어)를 주제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를 한 팀으로 구성해 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소소한 아이디어를 앱(App or Apk)이나 웹(Web)으로 구현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넥슨, 카카오 등 벤처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 개발자도 참가했으며, 기획자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 직원 등의 다양한 업종과 고등학생부터 40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무박 2일 동안 팀 구성, 역할 분담, 아이디어 기획 및 구체화, 프로토타입 개발, 디자인, 검증 및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 결과물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최종 결과물을 심사해 총상금 600만 원을 수여하는 3개의 팀 시상과 7개의 개인 시상이 있었다. 총 13개 참가팀 중 2위 우수상을 차지한 9팀은 '모바일을 활용한 직원 KPI 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2팀은 '웃팍'이라는 코디 컨설팅 및 중고의류 거래 모바일 서비스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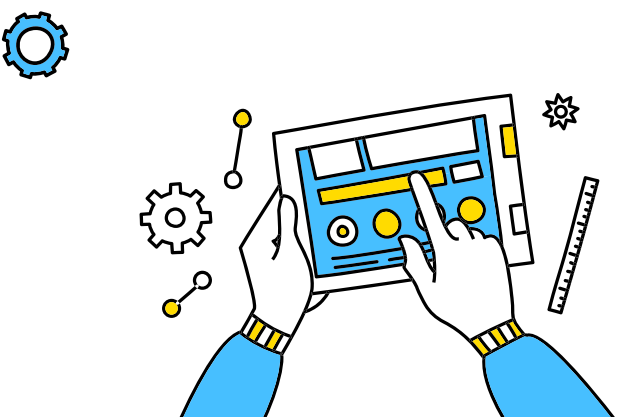


<Mini Interview>

ID; HACKATHON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KAIST 경영대학 창업동아리 K-ventures의 오윤록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Q. 해커톤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창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 구성원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각각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사업가에게는 이러한 팀 빌딩 및 팀워크를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커톤 행사를 통하여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Q. 창업을 고민하는 KAIST 경영대학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의학의 발달과 각종 질병의 극복으로 요즘은 80~90세까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100세를 바라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어린아이 시절부터 미성년의 기간 20년을 빼고 60세 이후의 노년의 삶을 제외하면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40년입니다. 그중에 1/3은 잠을 자고 쉬는 등의 시간을 더 빼면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일하고 살게 됩니다.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20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라 CYWORLD



“We are not here to do what has already been done.” –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창업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으로의 문을 여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벤처창업가라고 부른다. KAIST 경영대학 동문 중에도 벤처창업가가 상당수 있다. <Frontier>에서는 앞으로 몇 호에 걸쳐 230여 개의 동문이 창업한 벤처기업 중 몇 가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첫 시작으로 싸이월드 창업자 강영식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00년대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던 싸이월드는 흔히 '사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했다.

얼마 전 '응답하라' 시리즈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그리고 <응답하라 1988>까지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1980년대의 소품과 의상, 노래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한 아련한 추억들을 되살려주었다. 만약 2000년대 초를 다루는 '응답하라 2000'이라는 새로운 드라마가 제작된다면 아이러브스쿨, 프리챌, 다음의 카페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로 대변되는 인터넷 문화가 드라마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나는 KAIST 경영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개혁에 착수했고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면서 IT 산업 발전 및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국

가 지원 속에서 인터넷의 등장은 수많은 벤처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입학과 함께 EBIZ클럽이라는 인터넷 창업 동아리에 가입한 나도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학교 공부에 집중했지만 여름 방학을 지나면서 이동형, 형용준, 이정태 등의 석박사 과정 선배들과 함께 싸이월드 창업에 뛰어들었다. 싸이월드는 처음에 클럽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프리챌, 아이러브스쿨, 네이버, 다음 등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에 개인 PMS, 공유형 게시판, 채팅, 폴 서비스 등 커뮤니티 포털 형식을 도입하면서 싸이월드 서비스는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편된 서비스가 프리챌이나 다음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고 투자받은 자금이 떨어져 가는 위기 속에서 이동형 사장은 2001년에 시작된 미니홈피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럽 중심의 싸이월드 서비스를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로 변모시켰다. 사실

미니홈피 프로젝트의 성공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30대 여성 이용자들의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가를 반영해 미니홈피가 탄생한 것이다.

싸이월드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된 이후에 이동형 사장은 2005년 5월부터 일본 싸이월드의 사장으로 일했다. 이동형 사장은 나에게 일본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지만 나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되는 길을 택했다. 2008년 2월에 SK커뮤니케이션즈를 퇴사한 이동형 사장은 미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 간 것을 무척 후회했다. 만약 초창기 싸이월드 멤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면 페이스북을 뛰어넘는 기업이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이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했던 싸이월드는 최근에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창업에 뛰어든 많은 사람은 싸이월드의 도전 정신에 응답하고 있을 것이다.

– CYWORLD 창업자 강영식 동문 인터뷰 내용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프로세스애널리틱스연구소(APPS) 소장
KAIST 경영공학 박사(2008년 졸업, MIS 전공)
최근 <프로세스 마이닝> 저서 출간
→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싸이월드의 2016년 플랫폼



〈전덕빈 교수 인터뷰〉

Q.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학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1976년 창립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학회로 경영과학과 산업공학 분야를 주축으로 연구자 및 기업회원이 참여, 현재 3,900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연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3개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학회장으로 어떤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2020년에 세계경영과학회(IFORS)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IFORS는 전 세계적으로 3년마다 개최되어 약 2,500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6월 초에 회장 및 관계자가 방문하여 국제 학술대회 준비 회의를 하였고, 개최 장소인 코엑스, 호텔 및 기타 장소 등을 방문한 후 매우 만족하며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포럼을 통해 학회가 정부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ICT 기술을 접목하고 여객 이동 루트를 관찰하여, 여객들의 공항 통과 소요시간 단축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Q.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학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경영과학도들이 금융 컨설팅, 증권 투자, 은행 등 금융의 다양한 분야에 다수 진출해 있지만, 그간 한국경영과학회는 금융공학 분야를 강조하고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금융 산업체와 교류하며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 경영과학의 시각에서 많이 연구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Q. 앞으로 경영과학의 이슈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Frontier 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정부, 국민, 기업, 개인의 시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가 무엇 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맞춰, 필요할 경우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적절히 선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의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달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심리와 행태를 경영과학의 접근 방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회장에 취임한 전덕빈 교수와 강장구 교수를 만나다

KAIST 경영대학 전덕빈, 강장구 교수가 각각 한국경영과학회장, 한국파생상품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포부, 비전과 인사이트를 인터뷰를 통해 담아보았다.



전덕빈 교수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영과학회 학회장



강장구 교수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국파생상품학회 학회장



〈강장구 교수 인터뷰〉

Q. 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파생상품학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1년 창립하여 파생상품 교수들과 실무자 중심의 350명 회원으로 이루어진 학회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금융 공학의 메카인 KAIST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AIST 교수님들 및 동문이 계속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Q. 현재 학회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오는 8월 국제 학술대회인 '아시아-태평양 파생상품 콘퍼런스(APAD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자 및 교수, 연구자, 실무자들이 모여 파생상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발전 대안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인 '고빈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미시구조 관련해서도 특별 심포지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Q.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우선 APAD 콘퍼런스와 11월 학술대회를 지원하여 회원들끼리 파생상품에 대해 활발하게 발표, 토론할 수 있도록 돕고, 증권법학회와 연계한 파생상품 규제 심포지엄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ELS에 대한 감독체계와 규제, 그리고 나아가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며, 산학협력포럼을 통해 실무의 참여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산학 간 연결을 원활하게 하여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 Frontier 독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파생상품에 대해 위험하고 투기성이 짙다는 오해가 많지만, 파생상품은 투자기회를 확장해주고 위험을 헤징(Hedging)해주는 중요한 금융 시스템의 구성요소입니다. 자동차처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독으로도 이익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 졸업생들이 파생상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졸업 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수위 인터넷 범죄와 테러, 국제협력 통한 적극적 병폐 해결 모색

세계정보시스템학회 이재규 회장은(KAIST 석좌교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으로 어두워진 인터넷 세상을 밝게 개선하고자 '밝은 인터넷(The Bright Internet)' 세상의 비전을 선포하고 대내외 협의를 끌어내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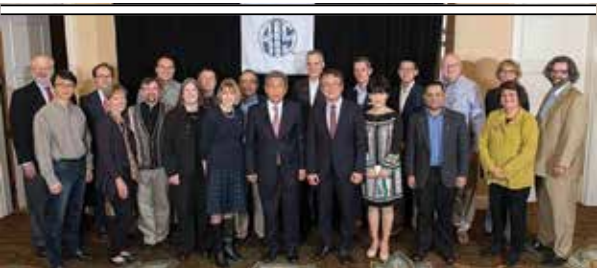


'밝은 인터넷'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다

2015년 7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정보시스템학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AIS) 회장에 취임한 이재규 KAIST 경영대학 석좌 교수가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 비전을 선포한 이후 적극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은 익명의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범죄와 테러의 온상이 된 유무선 인터넷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제도, 국제 협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는 밝은 인터넷 비전을 바탕으로 인터넷 범죄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국제적으로 채택하여 예방 위주의 인터넷 보안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보안 유지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인터넷 보안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협력해 국제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새롭고 밝은 인터넷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는 기후변화의 문제처럼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다



인터넷 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인터넷은 자유로움을 넘어 무법지대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통제력이 미흡하다. 초고속 인터넷 국가인 우리나라만 해도 매일 1백만 건의 DDOS 공격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인터넷에서 계속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나 금융, 교통 체계조차도 인터넷의 범죄 주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좀비 컴퓨터로 오염된 서버에서 매일 560억 개의 스팸 메일이 발송되며 인터넷 범죄는 올해 4천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인터넷은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무법지대가 되었고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재규 AIS 회장은 "심각한 인터넷 중독 및 무분별한 노출, 언어폭력 등의 문제는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도덕, 신뢰를 확보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공의

가 살아 있는 안전한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밝은 인터넷'이 추구하는 세상이며 세계적인 협의와 실천을 한국이 주도한다면 진정한 '정보 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밝은 인터넷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야"

'밝은 인터넷' 비전은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회의 비전으로도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UN 산하 국제정보처리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IFIP) 정보 보안 행태 연구그룹에서도 채택되었고, 국제 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과도 '밝은 인터넷'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KAIST, 중국 칭화대학교, 미국 여러 유수 대학교의 연구진이 범세계적으로 협력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에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경찰청 및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 안전 비전 선포식'에 학계 대표로 참여하여 밝은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인식 확대와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밝은 인터넷 세상' 구축에 힘썼다.

최근 이재규 AIS 회장은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밝은 인터넷 실현을 위한 중합기획과제를 수행 중이다. 기술, 제도, 국제협력 3가지 축을 동시에 연구하여 그동안 한 기구에서는 풀 수 없었던 과제들을 여러 기구와 협력하여 Global Submit을 통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한 걸음씩 실천해 나아가 공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국제 공동의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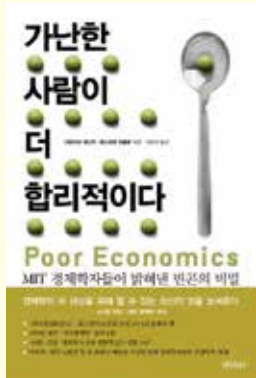
새롭고 밝은 인터넷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는 기후변화의 문제처럼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다 같이 뜻을 모아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원칙을 정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그 원칙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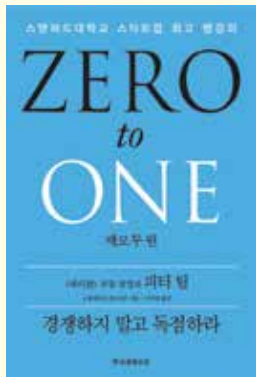
경영공학 박사 '16 하유성



ZERO to ONE

피터 틸,
블레이크 매스터스 지음

테크노 MBA '15 김은철



우리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 행태, 많은 자녀 수, 계획적이지 않은 가계 재무관리 등은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의 덫'에 가두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비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통념을 반박한다. 그동안의 빈곤한 삶을 이해하였다고 빈곤에 관해 이야기하는 '빈곤 경제학(Poverty Economics)'은 단지 거창한 모델 속에서 빈곤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가난한 이들을 그저 관찰한 것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은 오히려 부자 혹은 경제학자보다도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국제원조에 대한 논의에도 가까이 참여한다. 국제원조를 둘러싸고 빈국의 개발을 돕는다는 입장(제프리 삭스 등)과 오히려 원조가 지배층의 부로 귀속되어 빈국의 자립적 개발을 막는다는 입장(윌리엄 이스털리 등)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저자는 두 입장과는 한걸음 떨어져서 빈국의 개발을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우리는 그동안 '빈곤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의 자립, 나아가 원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의 통념을 뒤집으며,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것인지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며 나아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Y컴비네이터의 액셀러레이터로도 잘 알려진 피터 틸의 스탠퍼드 대학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페이스북 마피아라고도 불리며 유명세를 떨쳤던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흔한 자기계발 도서가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책도 아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혁신에는 특정 공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은 미래 흐름을 읽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독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0에서 1이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0에서 1을 창조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기업과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다. 기존의 사례를 따라 하고 발전해봤자 세상은 1에서 n으로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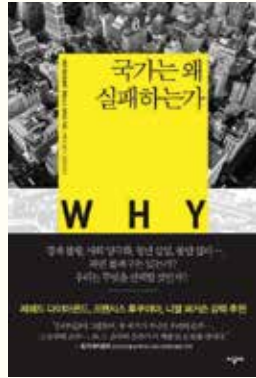
또한 저자는 경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독점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쾌한 논리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지금까지 당연한 통념으로 여겨졌던 '독점은 시장경제에 해롭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공한 몇 개의 기업은 독점기업이 되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만큼, 더 이상 독점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라고 그는 말한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그전에 반드시 그 일이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인지를 먼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혹은 독점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매쓰모쿨루,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금융공학 '15 조동인



빨래하는 페미니즘

스테퍼니 스탈 지음

녹색경영정책 '15 최민지



무엇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일까? 무엇이 국가를 실패하게 하는 걸까? 경제의 흥망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이 책은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강조한다.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요소는 기후, 지리적 위치, 문화 등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남미보다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척박한 북미는 오히려 남미보다 더 잘 산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식민지배의 역사를 함께 겪었지만,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더욱 잘 산다. 이러한 연유로 저자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한다. 오히려 제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억압적이고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획일적인 체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착취적인 제도하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배계층이 포용적인 제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포용적 제도로의 발전은 창조적 파괴를 낳고 이는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착취적 제도의 지배계층이 포용적 제도의 수용을 거부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근현대 경제사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이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낸다.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경제, 역사, 문화를 넘나드는 폭넓은 서술은 이 책을 통상의 경제학 책으로 분류하기엔 아깝게 한다. 세계 경제의 불평등과 그 이면에서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지난 5월 17일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성에 따라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두 개의 입장('나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다'와 '살아남(男)았다')은 첨예한 갈등구조로 뒤엉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필자에게 2014년에 발간된 <빨래하는 페미니즘>을 다시 손에 들게 했다. 이 책은 아내와 엄마로서 살아오던 저자가 다시금 '여성으로 사는 삶'을 되찾기 위해 페미니즘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내 혹은 엄마로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이 솔직한 경험에 기반을 두어 서술되어 있어 '비교적' 읽기 쉬운 페미니즘 도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 그려진 수십 년 전의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고 제모도 하지 않은 채 폭주하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전략은 오늘날에도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메갈리아'와 관련한 논쟁만 보아도 급진적 페미니즘의 파괴적이고 분노 어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어떻게 나라와 가족을,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켰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그 덕분에 여자들이 누리게 된 기회는 잊고 있다. 분노는 행동이라도 이끌어 내지만 애매모호함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말한다.

'여자들은 매일 가정과 직장에서 평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 소규모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개인에 달렸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행위에 '이기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했던 한 인간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저자는 말한다. "이제 나는 한때 나였던 여자아이와 오늘날 나인 여자가 동일선상의 점이라는 걸 안다. 그녀가 나이며 내가 그녀다. 우리는 함께 다른 인생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참조해 우리의 발자국을 앞뒤로 더듬으며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를 만들 것이다. 여기, 이곳에서"



2016년도 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 스승의 날 행사 개최

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의 스승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11일 SUPEX 경영관 301호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이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교수들의 연구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책장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교수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의 편지 낭송, 스승의 은혜 노래 합창, 카네이션 증정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교수들의 따뜻한 답사가 이어졌다.



제5회 총동문 골프 대회 ProAm Golf 행사

지난 5월 7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캐슬파인 CC에서 제5회 총동문 골프 대회 ProAm Golf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전공별/개인별 두 가지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MBA, TMBA, 경영공학, 금융공학 등 다양한 전공과 동문들이 참여하였는데, 전공별 게임에서는 TMBA가 우승 상패를 획득하였고, 개인별 게임에서는 이해식 동문(TMBA '95)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번 골프대회는 동문들의 후원으로 최신 프린터, 휴대용 충전기, 도서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어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KAIST-McKinsey&Company, '경영리더 양성 위한 교육방법론 공동연구' MOU 체결

지난 4월 8일 KAIST(총장 강성모)와 맥킨지 코리아(대표 최원식)는 KAIST 경영대학 SUPEX 경영관에서 '미래 경영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육 방법론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한 미래 경영전략 연구, 경영리더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 방법론 개발, 혁신 패러다임에 대비한 경영기법 개발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유연 리더십(Agile Leadership)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등의 관점에서 교육방법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MIPT-KAIST Discovery Expedition Program 수료식

모스크바 물리기술원(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과 KAIST 경영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MIPT-KAIST Discovery Expedition Program이 지난 5월 28일 수료식을 가졌다.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항공, 엔지니어링, 전기 전자,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석사 1년 차 학생들이 참가했다. 강의는 오퍼레이션과 산업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영 현장과 학문을 접목하는 기회로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삼성 등 한국 유수기업을 방문했다. 17명 전원 모두 수료했고, 특별히 수료식 당일엔 MIPT 관계자의 축하 메시지를 라이브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수료의 기쁨을 더했다.



삼성SDS-KAIST 기술경영과정 1기 수료식

삼성SDS-KAIST 기술경영과정 1기가 지난 7월 15일 수료식을 가졌다. 4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2주 진행된 본 교육과정은 삼성SDS 과·차장급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ICT기술과 경영 역량을 보유한 차세대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기술경영 교육을 통한 ICT 트렌드 이해 및 미래 예측력 배양을 위한 강의들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현업 선결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팀 프로젝트 또한 매주 진행하였다. 1기 과정생 40명 전원이 모두 수료하였으며, 특별히 수료식 당일엔 삼성SDS 정유성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이 KAIST를 방문하여 과정생 수료를 격려했다. 2기는 2016년 8월말부터 이어서 시작할 예정이다.



이지환 교수-김지희 박사과정 학생, 2016 한국지식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경영공학부 이지환 교수와 김지희 박사과정 학생은 공저한 "기업의 내외부 지식 원천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집단 효과" 논문으로 지난 6월 10일 쉐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지식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2015년도 '지식경영연구'지 게재 논문 가운데 선정)을 수상했다.



글로벌리더과정(GLP) 6기 파견기관 방문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공공부문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글로벌리더과정(GLP) 6기는 지난 2016년 3월 2일 입학식을 기점으로, 4월 23일과 5월 27일에 한국마사회의 렛츠런파크와 제주경주마목장을 방문하여 경주마 산업 및 말 생산농가 산업을 체험하였다. 5월 3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통합 운영센터와 열병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전국 관리 시스템 현장을 경험하였다. 6기 교육생들은 상반기 KAIST 경영대학에서 국내연수과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6개월간 수학할 예정이다.



2016 글로벌 기술사업화 워크숍 및 국제 콘퍼런스

기술경영학부의 글로벌 IT기술프로그램(ITTP)은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2016 글로벌 기술사업화 워크숍 및 국제 콘퍼런스'를 KAIST 문지캠퍼스와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넘치는 열정, 녹색경영정책 1기 장병일 동문을 만나다

삼일 PwC 선임 컨설턴트, 장병일 동문(녹색경영정책 '13)

소신 있게 도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병일 동문을 만나 그의 뜨거운 열정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KAIST 녹색경영정책 동기들과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및 업무소개 부탁드립니다.

녹색경영정책 1기를 졸업하고, 현재 삼일 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 변화 서비스팀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PwC Global에서 기후변화 서비스 분야 관련 전문 인력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한 팀은 PwC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전담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입사 후 현재까지 KDB산업은행의 GCF 이행기구 등록 자문, 외국 투자회사와 유럽연합(EU) 중소기업들의 한국 녹색 시장 진출 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녹색경영정책의 첫 졸업생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었나요? 또한, 녹색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따로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상담을 통해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컨설팅 업무는 기존의 환경경영 컨설팅 보다 경계면에서 더 넓은 영역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회를 접합니다. 아마 10여 년 전부터 이 분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금씩 영역을 넓혀왔던 전문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같은 녹색 전공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각 분야에서 '녹색성장'의 진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실행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의 공감을 얻는다면 그때는 이 분야의 시장 기회를 논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Q. 현재 직장에서 녹색경영정책 동기 3명과 함께 근무 중이신데,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었는지요?

입사하고 처음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이 건 그 동기가 잘 아는 분야인데,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내 구성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동기들을 단기 컨설턴트 자격으로 합류시켜 어려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기들의 역량이 저희 팀 분들에게 잘 어필되었던 것 같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3명의 동기들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글. 김경현 기자



Q. 사회로 나아가길 KCB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넓게 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전공의 학우들과도 폭넓게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과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일까?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일까?'라고요. 혼자 하는 공부와는 다르게 다양한 협업의 기회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좋은 기회들이 달갑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협업의 중요함을 깨닫고, 다방면의 지식과 더불어 소중한 인맥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글. 김형진 기자

Q. 개원 20주년을 맞아해 2025년까지 World Top 20 Business School이 되기 위한 비전을 새로이 세운, KAIST 경영대학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본원의 기술경영학과와 통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원의 여러 기술과 경영대학의 경영과 잘 융합되고 교류가 많아져 새로운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창업자들과 연구자들이 KAIST 경영대학에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2016년 7월)

개인기부

※ 괄호 안 숫자는 가수, 경영공학은 입학년도

<일반 기부>

주현 EMBA(4), 김보원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민희 KAIST 경영대학 교수, 허기호 AIM(7), 주현 EMBA(4), 황성식 경영공학 박사(1993년), 이태균 금융(1)

<후배사랑 장학금>

구윤모 TMB(A16)

<KCB 좋아요 월정액 후원>

교원 157구좌 | 강문형, 고우화, 권영선, 권오규, 김동식, 김민기, 김상협, 김영걸, 김영배, 김재철, 김종창, 김주훈, 김태현, 류종렬, 박건수, 박광우, 박병호, 박상찬, 배종태, 백윤석, 변석준, 안재현, 엄지용, 오원석, 이규석, 이병태, 이인무, 이재규, 이재원, 이자환, 이찬진, 이희석, 인영환, 장세진, 정재민, 조대곤, 진병채, 한인규, 허순영, 홍인기 직원 33구좌 | 김원식, 김학기, 김행란, 김혁순, 마세영, 문현경, 박효진, 서민채, 신명철, 신재용, 오성지, 유은진, 윤미자, 윤주원, 이지은, 이진영, 이항숙, 이혜란, 장계영, 정나래, 주선희, 지주희, 최서영 경영공학 31구좌 | 박영일(1982년), 박하진(1991년), 신원준(1992년), 박기우(1993년), 전수환(1993년), 노정석(1994년), 이길형(1994년), 김범수(1995년), 이상원(2000년), 양성병(2001년), 류성현(2010년), 김형진(2013년), 김지수(2013년) 이그제큐티브 MBA 70구좌 | 조성행(1), 김중철(2), 김진기(2), 남웅(2), 서종현(2), 성원호(3), 유영희(3), 유지찬(3), 문성훈(5), 이재성(5), 홍지중(6), 김성엽(8), 임한준(8), 공정호(10), 김성욱(10), 신스캇(10), 유승오(10), 최길재(10), 배재영(12), 오경주(12), 이윤희(12), 정유철(12), 지현(12), 최우식(12), 권오현(13), 박인복(13), 송보근(13), 양성원(13), 여준희(13), 장승현(13), 형인우(13), 호요삼(13) 정보미디어

MBA 8구좌 | 허준(3), 신상희(4), 김성중(9), 류해원(9), 박셋백(9), 이세정(9) 정보경영 MS 7구좌 | 마민철(1), 정형주(1), 양상근(2), 장재승(2) 김승현(3) 금융 18구좌 | 남홍용(1), 서병기(1), 이익주(1), 조두희(1), 허필석(1), 이병호(2), 차봉수(3), 김동규(18) 경영정보(MIS) 11구좌 | 권오훈(1), 이박(2), 한상철(4) 프로페셔널 MBA 18구좌 | 강영대(1), 고용협(1), 이찬성(1), 채승용(1), 김형균(3), 박이수(3) 사회적기업가 MBA 2구좌 | 정지연(1), 임태열(2) 테크노 MBA 4구좌 | 이재구(7), 이은영(9), 윤영진(20) 통신경영정책 1구좌 | 안성훈(3) AIM 91구좌 | 김주인(5), 이관석(6), 강보영(12,34), 안대기(13), 박기준(14), 김부길(15), 김정원(15), 이종열(18), 전창근(18), 배동진(20), 김종남(21,26), 김덕표(23), 김광선(27), 정순철(30), 염민경(31), 장인수(32) AIC 3구좌 | 김성규(30), 김종필(30), 박문선(30) ATM 4구좌 | 김선희(15), 김덕표(17) KBM | 이홍열 삼성SDS 과정 2구좌 | 김병희, 한호진 신한은행 과정 9구좌 | 강기철, 김두현, 김선권, 김은희, 남옥향, 박병수, 윤태호, 이병식, 이인선 한화 과정 1구좌 | 최병수 BK 과정 1구좌 | 조은정 S-OIL 과정 3구좌 | 김영배, 박성훈, 하대일 KCB좋아요 21구좌 | 강상국, 김영아, 김은영, 김정호, 김희림, 박종호, 심영선, 정규상, 최정민 학부모 21구좌 |故 설순희 여사, 박수용, 이문환

기업기부

(주)코람코자산신탁, (주)디알비동일, 매일유업(주), (주)골프존, (주)세이텍 인터넷서널, (주)시즈글로벌, 아프리카TV (KAIST 경영대학 인터넷 방송국 방송 별풍선 기부), 데이즈데이즈, 한국투자증권

[발전기금] KCB 좋아요 월정액 후원 캠페인

작성 후 휴대전화로 촬영, 1666-3249(문자전송)으로 전송하시면 접수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	.
월정기부금액(매월) :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자동이체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	
주소 :			
☐ 재학생 ☐ 동문 ☐ 학부모 ☐ 교직원 ☐ KCB  좋아요			
입학 년	전공(과정) 입학 (학생성명:)		

자동이체를 위해 수집하는 은행명,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회원등록 및 소식 제공,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로 자동이체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_____

한국과학기술원 귀중

정기기부로 KCB  Dreamers CLUB에 가입되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business.kaist.ac.kr/giving KCB  Dreamers CLUB Tel : 02-958-3249

‘KCB 좋아요’ 졸업생 기부자 임태열 님

임태열 동문(SEMBA '14)



Q. Bizz@KAIST의 김조교 테레비에 출연하시면서 'KCB좋아요' 기부약정을 해주셨는데요, 출연과 동시에 기부를 결정해주신 사연이 있나요?

KAIST 경영대학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았기에 지금 제가 창업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었고, 저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김조교 테레비' 출연하였습니다. 이때, 김조교님의 기부약정 권유에 이전부터 갖던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단체기부

<EMBA 10기 일동>

공정호, 김경준, 김관식, 김기수, 김동윤, 김성욱, 김우재, 김정수, 김종덕, 김진복, 류광택, 박성수, 백상기, 서건기, 서현국, 신스캇, 양영민, 양진하, 오덕수, 우재혁, 유승오, 이선미, 이승우, 이주환, 이창훈, 임상빈, 임상학, 전태현, 정승원, 정현용, 최길재, 최용석 <EMBA 11기 일동> 강명순, 곽형문, 김승민, 김용철, 김인용, 김일홍, 김준홍, 김홍석, 배진호, 서정인, 송주백, 오용근, 우수화, 유영찬, 윤한석, 이성민, 이승을, 이연주, 임상협, 정중훈, 정진구, 정진수, 주철, 차동진, 최윤석, 한재성, 현종수, 홍상수

<AIM 41기 일동>

고광후, 권소현, 권용환, 권태곤, 김장환, 김호상, 노미정, 박석순, 배주현, 석수진, 송미영, 송재순, 사석중, 신상범, 심윤희, 이광렬, 이우상, 이철수, 정재윤, 채준원, 최인영

<AIM 42기 일동>

경계현, 김덕술, 김상환, 김진원, 김학기, 김희수, 남병현, 박영일, 박주원, 송두영, 송영미, 신병호, 양희준, 원용민, 윤정국, 윤준구, 이미라, 이상복, 이양구, 이영진, 이준혁, 임한정, 정보연, 최성호 <AIM 43기 일동>

강종구, 김일만, 김종성, 김종성, 김중현, 김주형, 김한성, 남영미, 류기형, 박영훈, 박진호, 송인규, 오치범, 이용, 임재정, 전재호, 정문정, 정순문, 하운식, 황영석

<AIM 44기 일동>

김덕식, 김민교, 김성태, 김영남, 김영현, 김용석, 김찬용, 김현철, 김훈, 남철순, 문성준, 박동운, 박상현, 배경성, 백현주, 신희태, 안영엽, 어경찬, 유승덕, 육태선, 이문기, 이철원, 임정호, 장영석, 이학구, 이호철, 임대규, 장영현, 정순일, 정인호, 조성준, 조재훈, 최재호, 최진영, 허순석, 허재호, 황해연

<AIC 29기 일동>

강병석, 강인규, 고영남, 김범준, 김수찬, 김홍규, 남성현, 박무정, 박선규, 박원규, 박필수, 서경수, 서동민, 성기훈, 신승훈, 양원석, 어용자, 여선남, 오상석, 윤철보, 윤현진, 이동욱, 이무상, 이상권, 이성우, 이수찬, 이영미, 이종민, 이준, 이철원, 임정호, 장영석, 장유진, 정영훈, 조광진, 조종식, 최종진, 한대철, 한상철, 황응선 <AeG 26기 일동>

김경태, 김근민, 김남수, 김도교, 김두성, 김세환, 김영갑, 김지영, 김진홍, 박두환, 박상호, 박성용, 박수경, 박재춘, 서봉자, 손영조, 손은정, 심은규, 유찬중, 윤영준, 이선성, 이수일, 이승렬, 이시현, 이재호, 이현숙, 임규구, 정진수, 최병철, 한성국, 홍남순, 황규창 <AeG 28기 일동>

강은숙, 공상철, 구세림, 권오민, 김경숙, 김봉수, 김성남, 김세환, 김언환, 남재성, 민민근, 박범수, 박석민, 박승호, 박영달, 박우현, 박해영, 배인영, 변지석, 이문기, 이방무, 이용욱, 이철균, 이충주, 장광호, 장석우, 전덕주, 정남주, 최대성, 최홍상, 하현철, 한형주

<정보미디어 MBA 67기 일동>

이상엽, 배상훈, 김정호, 배경룡, 이수진, 한아람, 이선호, 김지연, 박소연, 박근민, 김기훈, 이충수, 윤진아, 김현돈, 송진형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 임원진 일동>

차봉수, 최영진, 이상희, 강명우, 백승훈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는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1666-3249

nrjung@business.kaist.ac.kr